

CBMC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회 탐방 산타클라라



산타클라라 CBMC 창립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오른 손으로 'C'를 외치면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창립한 CBMC Santa Clara 지회, 지회장 실비아 리 입니다. Santa Clara 지회 창립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때에 저희 Santa Clara 지회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창립대회를 위해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며 멀리 남가주에서 무더위속에 장거리 운전올하고 기쁨으로 참석해주신 황선철 서부총연 직전 회장님,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 회장님, Lynn 최 재무님, 그리고 새크라멘토지회 최계영 지회장님과 Tri-Valley 지회 박성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모든 지회 회원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의 초석이 되어주신 저희 Sponsor 지회인 샌프란시스코 지회 손대운 회장님과 샌프란시스코 지회 모든 선배 회원님들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것을 익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은혜가운데 인도해주신 강승태 CBMC 서부총연 총회장님과 신승수 고문님, 계용식 북가주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저희 지회의 첫 모임을 주선해 주시고 장소 제공및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오미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신 김이수 지도목사님과 여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과 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타클라라 지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CBMC와 함께 일터를 선한영향력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속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CBMC Santa Clara 지회, 지회장 실비아 리 올림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 회장>



금번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 참석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당일로 다녀온것이 무리한면도 없지않았지만 안전하게 잘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성황리에 지회창립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활동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들을위해 지속적으로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차례	
지회탐방 - 산타클라라	1쪽 - 6쪽
까마귀를 생각하라	
-임봉대 목사	7쪽
땅끝 향기-강명선	8쪽
광고 :	9쪽 - 13쪽
북가주 연합회 피크닉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제12차 CBMC 세계대회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총회 및 모임 안내	14쪽

CBMC 미주한인기독실업인 서부총연합회 축하 메시지

강승태 총회장 안녕하세요
 산타클라라 창립대회를 위하여 기도로 재정으로 성원해 주신 동역자
 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립한 지회가 탄탄하게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24

오현근 LA 지회장

민 김 가든 그로브 지회장

먼길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
 셧네요. 함께 하지 못해 아쉽고요
 . 산타 클라라 지회의 발전을 기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하지못해서 많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모자람을 대신 할게요.
 축복합니다.



송종보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을 축하드리며 무
 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함께 못해서
 죄송했고 먼 길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Santa Clara 지회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이라는 주제곡을 Santa Clara 지회 홍성준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양이 저희들의 삶에 간증이 되고, 미주서부 한인CBMC를 통해 많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작사/곡 홍성준
편곡 E.Gen
채보 표수지

하나 - 님 - 을 믿는 사 람 - 은 - 말 씀 이 - 삶 이 되 - 고 - 하나

5 님 과 함 께 사 는 사 람 - 은 - 삶 이 예 배 가 - 되 - 네 - 하나

9 님 - 을 아 는 사 람 - 은 - 말 씀 이 - 삶 이 되 - 고 - 하나

13 님 알 리 는 사 람 은 삶 이 예 배 가 되 - 네 - 말씀

18 이 삶 이 되 는 그 곳 - 에 - 복 음 이 - 능 력 이 - 되 - 고 - 삶

22 이 예 배 되 는 그 곳 - 에 - 복 음 이 - 축 복 이 - 되 - 네 -

한국일보 - 2023년 7월 20일자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지회'



실비아 리 산타클라라 초대 지회장 (중앙)과 창립 회원들

산타클라라 CBMC(지회장 실비아 리)가 지난 15일 산호세 산장식당 연회실에서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을 주제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박선주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실비아 리 지회장의 환영사와 이봉우 남가주 연합회장의 기도예 이어 최계영 새크라멘토 지회장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서 뉴콰이어(지휘 아이린 장)의 축가가 있었고 설교는 김이수 산타클라라 지회 지도목사가 맡았다.

김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딤후 6:11-12)란 제목으로 CBMC 일터 사역자가 본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을 강조했다.

이진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창립식에서 축사에 나선 강승태 미주서부 총회장은 '지회가 탄탄하고 연합회가 튼튼하면 총연은 건강해진다'고 강조하며 산타클라라 지회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서 또 다른 지회를 탄생시켜 지경을 확장하기를 당부했다. 우동욱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의 축사와 황선철 총연 직전회장과 신승수 총연고문의 격려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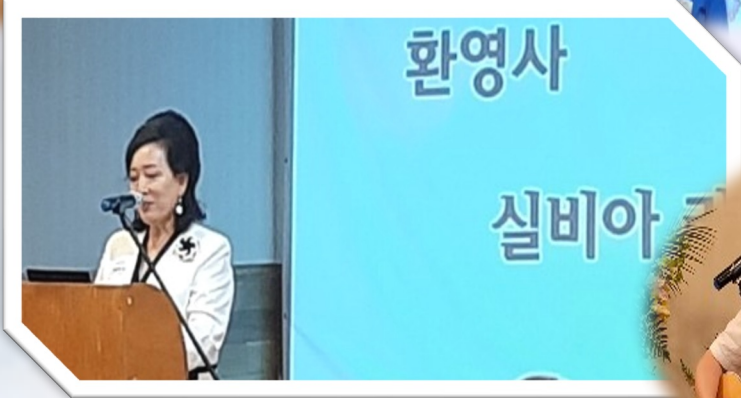
강승태 총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초대 실비아 리 지회장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과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인 CBMC 사명에 따라 사역 할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창립회원 15명을 소개 하고 산타클라라 창립 스폰서 지회인 샌프란시스코 지회 손대운 회장과 회원들은 일일이 한명씩 CBMC 배지를 달아 주며 축하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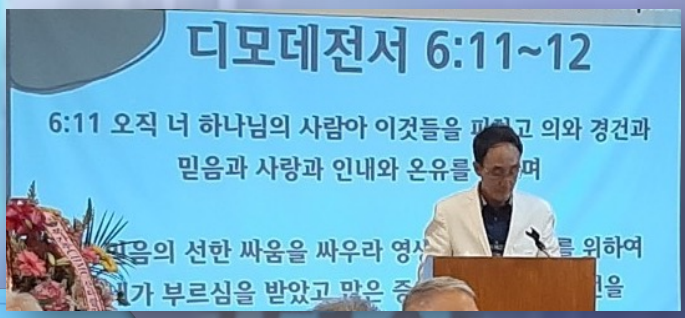
임봉대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도목사의 축도에 이어 최승암 트라이밸리지회 지도목사의 오찬 감사기도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시작 찬양을 인도한 홍성준 목사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주제를 찬양곡으로 직접 작사 작곡하여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박성희 총연 사무국장은 광고를 통하여 한국대회 겸 세계대회가 오는 8월15일 -19일까지 영산 수련원에서 개최되며 서부대회는 10월5일-7일 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 대회 이모저모



주님을
주님을



까마귀를 생각하라

임봉대 목사 (샌프란시스코 CBMC)

까마귀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새의 이름이다. 노아는 왜 방주에서 그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제일 먼저 내 보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창 8:7)는 말을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가 물위에 떠있는 시체들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세상일에 정신이 팔려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를 까마귀 같은 성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좋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여기서 ‘왕래하였다’는 말의 히브리원어는 ‘슈브’인데, ‘돌아오다’(return)이란 뜻이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는 뜻이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까마귀를 통해 이 세상에 가득 찬 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파악하였다. 까마귀는 세상에 가득 찬 물의 상태를 알려준 노아의 충실한 메신저였다.

까마귀는 새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죽음이나 화재등을 미리 알리는 능력이 있다. 까마귀는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특히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며 음식을 저장했다가 먹을 줄도 안다고 한다. 아합 왕 시대에 예언자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도 까마귀였다(왕상 17:4-6).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효도를 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은 까마귀의 새끼가 다 자란 뒤에는 어미 새에게 공양한다는 이야기다. 까마귀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새조차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는데, 사람도 마땅히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까마귀 같은 보잘 것 없는 새도 노아와 엘리야를 위한 충실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충실한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까마귀를 언급하셨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새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욥 38:41; 시 147:7-9 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세상 염려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

땅끝향기

뚜께 동그랑땡

강명선

누구든지 태국에 와서 며칠을 지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곤충이나 파충류를 만나게 된다. 집안 창틀을 타고 날렵하게 오가는 도마뱀이나 우기면 구석구석 꾸물대는 깡가, 알록달록 상황에 맞게 보호색을 띠며 나뭇가지나 수풀 사이로 오가는 카멜레온을 만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 목직향 바리톤으로 '뚜께~ 뚜께~' 하고 우는, 소름 끼치도록 흥측하게 생긴 뚜께도 흔히 만나는 녀석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뚜께의 울음소리는 동네 어르신들의 무거운 기침 소리 정도로 소화할 수 있지만, 아주 가까이, 우리집 천정이나 창가에서 들릴 때면 피하고 싶은 불청객이 되곤 한다. 이토록 반갑지 않은 녀석이 우리 집 천장 위의 틈새로 드나들더니 천장 위에 새끼도 낳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두었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소문이 났기에 만나기만 하면 생포를 하리라 마음먹지만, 휘두를 용기를 내지 못한다. 심지어 사내대장부인 남편조차도 . . . 우리 막둥이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나 개미, 뱀, 뚜께 같은 걸 만드셨어요? 난 정말 싫은데 . . .”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사는 태국인들은 모든 생물을 다 귀하게 여긴다. 뚜께도 천식 치료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나라 공주는 치앙라이 별장에 올 때마다 뚜께를 잡아먹곤 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몸이 건강해 국민을 잘 돌본다나? 아무튼, 뚜께가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 주현이는 어릴 적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뚜께를 먹어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뚜께 요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서 이 약 저 약 먹이며 안쓰러워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가족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짜라폰 집사님과 위라 장로님이 주현이를 위해 손수 뚜께를 잡아 오신다는 것이다. 껍질을 벗기고 살만 저민 후 잘게 다져 마치 동그랑땡처럼 튀겨 가지고 오셨다. 사랑스러운 주현이에게만 주는 특별 선물인 양 가지고 오셔서 기분 좋게 먹일 수 있었다. 막내 주옥이가 오빠만 먹는 동그랑땡을 욕심내는 바람에 말리느라 애먹긴 했지만, 주현이의 까다롭지 않은 식성 덕분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먹일 수 있었다. 좀 특이한 소고기려니 하며 케첩에 찍어서 다 먹는 걸 보니 엄마로서 뿌듯하기까지 하였다.

뚜께를 잡는 일도 요리하는 일도 게다가 비밀리에 주현이에게 먹이는 일까지 . . . 끝내는 못한 숙제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긍정적인 위라 장로님은 아무 염려할 것 없다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큰소리치셨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집 뜰에 심어진 과실수의 가지를 친다고 집주인 아저씨가 오셨다. 용안나무의 나뭇가지가 지붕을 덮어 개미들이 줄을 지어 창문을 타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주옥이 피부가 온통 개미에게 물린 상처로 엉망이 되어있었다. 집주인 아저씨는 온종일 가지 많은 용안나무를 정리하셨다.

“어, 여기 좀 보세요. 싱싱하고 엄청 큰놈을 잡았어요. 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반값죠?” 하며 큰 뚜께 두 마리를 내보이시는데, 나는 간이 떨어져 나가는 심정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주현이를 위해 예비해 두셨구나.' 싶어 두 눈 질끈 감고 맛있게 잡아 먹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겠는가? 죄송함을 무릅쓰고 위라 장로님의 도움을 청했다. 위라 장로님은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시며, 날씬 놈들을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너무 잘 되었다며 오셔서 뚜께를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저 징그러운 녀석들을 우리 집 부엌에 들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였다. “이리 와서 보세요. 살이 얼마나 깨끗한 핑크 빛인지 . . . 높은 곳에서만 기어 다녀서 그야말로 무공해라구요. 우리 주현이 이거 먹고 나면 천식 다 낫겠는 걸요.”

위라 장로님의 흔쾌한 섬김이 너무도 고마웠다. 제발 이 뚜께 먹고 우리 주현이 천식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드디어 비밀스레 차려진 식탁 위에 뚜께 요리가 올려졌다. 이번에는 주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부침 요리에 뚜께의 다진 살을 섞어 넣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드셔요?” 하며 맛있게 먹는 주현이 덕에 순직하게 이번 계획도 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보니 주현이가 뚜께를 세 마리나 먹은 셈이다.

체육 시간이면 뛰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곤 하던 우리 주현이. 치앙라이 겨울의 심한 일교차로 밤이면 기침 때문에 괴로워하던 우리 주현이. 천식 고쳐 달라며 늘 기도하고 잠드는 우리 주현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증세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염려되던 내 마음과는 달리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던 우리 주현이. 그런 주현이가 어느 날 자신이 뚜께를 세 마리나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놀 것 없이 뚜께였어요? 어쩐지 다른 사람들이 왜 안 먹나 했어요. 호호 근데, 맛이 꽤~ 괜찮았는데?”

그 후 주현이는 매우 건강 해졌다. 비를 맞아도, 장거리 여행길 차안에서 밤새 에어컨 바람을 맞아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다. 운동장을 뛰어도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정말 뚜께의 효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라 장로님의 사랑과 주현이의 순전한 믿음이 천식을 낫게 했으리라.

이제 뚜께의 울음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정담을 나누게 한다. “주현아, 너 뚜께 몇 마리 먹었지?” 하면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인다. 누나인 주혜는 “우-욱” 하며 토하는 시늉을 한다. “오~빠는, 오~빠는, 뚜께 먹었대요. 뚜께 먹었대요.” 주옥이의 놀림에도 상관없다는 듯 웃고 있는 주현이를 본다.

어느새 뚜께는 우리 가족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시 한번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을 위하여 먼 길마다하고
오신 황선철 직전 총회장님, 이봉우 회장님, 린희 재무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세분이 제셨기에 더욱 더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ICNIC PARTY

언제 : 2023년 9월 2일 오전 10시 부터

어디서 : Chabot Park

Estudillo Ave and Sylvian Cir,

San Leandro, CA 94577

문의 : 손대운 지회장 (408) 768-3433

박성희 사무국장 (408) 623-5818

주최 : 미주 서부총연 북가주연합회

주관 : 샌프란시스코 지회

제2회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언제 : 2023년 10월 5일~7일

어디서 :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최 :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CBMC 세계대회 2023

일시 2023/8/15 Tue. - 18 Fri. 장소 영산수련원(오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CBMC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사명



등록 안내

국내(숙박별도)

사전등록비 | 개인 30만원 / 부부 55만원 **사전등록 마감** | 7월 14일(금)
정규등록비 | 개인 33만원 / 부부 60만원
유치부 13만원 / 초등부 18만원 / 중고등부 18만원
대학청년부(파란회) 21만원

문의

Phone.

02-717-0111

E-mail.

koreacbmc2023@gmail.com

CBMC World Convention 2023

cbmc2023korea.com

[CBMC세계대회 통역자 모집 안내]

다가오는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역으로 함께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대회일시 : 2023.8.15(화)-18(금)
- * 모집인원 : 00명
- * 지원자격 : 강의/설교 동시통역 경험자 (통역부스에서 2인 1조로 진행)
- * 신청마감 : 6월 21일(수)
- * 문의 : 한국CBMC 황지혜 간사 ☎070-8233-7406 ✉kathyjhwang@cbmc.or.kr
- * 대회장소 : 영산수련원(오산리)
- * 모집언어 : 영어, 중국어

대회 일정

CBMC 세계대회 2023, 축복의 시간

CBMC 세계대회 2023

주제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화)	16 (수)	17 (목)	18 (금)	
요일별 주제	우리는 CBMC	하나의 사명	하나의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목표	우리는 누구인가	일터에서 전도와 양육	나눔, 동역, 협력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7	복음을 통한 각자의 일터사역에 대한 소명 찾기	아침예배 곽수광 목사 (푸른나무교회)	아침예배 정귀석 목사 (주평강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각 국, 전 세계적으로 CBMC 국제적 사명과 비전 정립	
8					
9		경배와 찬양 간중 [한국CBMC]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경배와 찬양 간중 [아시아CBMC]		폐회예배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0		특강 [대만CBMC] Peter Sher(피터 셔) (대만 핑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좌교수)	특강 인요한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소장)		간중 [유럽/미국] 특강 Chris Simpson (크리스 심슨) (국제CBMC 사무총장)
11		휴식	휴식		폐회식
12		세션강의 #1	세션강의 #3		
13		1. Evangelism(전도) 2. 한국 비전스쿨 소개 3. 해외한인총연 사역소개	1. Connect3 Teams(지회운영) 2. IT 선교의 뉴비전 3. 한국CBMC의 다음세대 사역		
14		등록	점심		점심
15		오프닝 연주 한반도 복음.동일을 위한 기도.음악회 오케스트라 & 합창단	세션강의 #2		세션강의 #4
16		개회식 기수단 입장 환영사/축사 특별 공연	1. Discipleship(양육) 2. 일터사역과 간중 3. CBMC 시대적 도전과 사명		1. Trusted Advisor Forums 2. Young Professionals 3. 예수님의 리더십&경영 노하우 4. 지회사례 발표
17		개회예배 권순웅 목사 (주다산교회)	휴식		휴식
18		휴식	찬양제		영 프로페셔널 공연
19	펠로십 타임	펠로십 타임	휴식 특강 박성규 총장 (충신대학교)		
2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21	[대륙의 밤] 아시아	[대륙의 밤] 아프리카	[대륙의 밤] 라틴아메리카		
22	1. 간중 최신규 아나운서 2. 특강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1. 간중 2. 특강 Mosotho Moepya 모소토 모에파 (남아공 선거관리위원장)	1. 간중 2. 특강 Mark Whitacre 마크 휘태커 (코카콜라 콘솔리데이티드 Culture & Care 부사장)		
23	폐회 기도 및 찬양	폐회 기도 및 찬양	폐회 기도 및 찬양		

세션 강의

CBMC 비전사 2023, 10월 4일

세션강의 #1 (8/16 오전)

주제	설명
1. [국제CBMC] 전도: 산 증거 모험 (Evangelism : Living Proof Adventure)	12가지 원리를 삶속에 적용하여 주변인들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제시
2. [한국CBMC] 한국 비전스쿨 소개	한국CBMC 비전스쿨 운영방법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 소개
3. [한국CBMC] 해외한인총연 사업소개	각 해외한인 총연 사업 소개 및 간증 나눔

세션강의 #2 (8/16 오후)

주제	설명
1. [국제CBMC] 제자훈련: 영적 재생산자 되기 (Discipleship : Becoming a Spiritual Reproducer)	제자훈련 도구로 디모데 전략 교재를 활용하여 영적 성장을 위한 방법 습득
2. [한국CBMC] 일터사역과 간증	일터사역 소개 및 일터 변화에 대한 간증 나눔 시간
3. [한국CBMC] 시대적 도전과 사명 (일터사역을 위한 기업문화 혁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전은 무엇이며 일터사역을 위해 변해야 할 기업문화는 무엇인지 토의 나눔

세션강의 #3 (8/17 오전)

주제	설명
1. [국제CBMC] 지회 리더 훈련 (Connect3 Team Leader Training)	Connect3팀은 전세계 CBMC 활동의 기본단위로 효과적인 지회를 창립하고 교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습득
2. [한국CBMC] IT 선교의 뉴비전	CBMC의 미래 사역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CBMC의 사역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논의
3. [한국CBMC] 한국CBMC의 다음세대 사역	캠퍼스 사역 및 젊은 전문인 비즈니스 사역을 통한 한국CBMC의 다음세대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세대교체 준비를 위한 전략 나눔

세션강의 #4 (8/17 오후)

주제	설명
1. [국제CBMC] 청년 전문인 사역 (Young Professionals)	25세부터 40세까지 청년 전문인들이 지회(팀)를 이루어 지회 배가 사역을 시작하고 개인, 일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제시
2. [국제CBMC] 신뢰받는 조언자 포럼 (Trusted Advisor Forums)	포럼은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지회가 담겨있는 지침서로 활용 방안 제시
3. [한국CBMC] 예수님의 리더십과 경영노하우	예수님의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지, CBMC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왜 '그분'의 리더십 모델을 따라야 하는지 소개
4. [한국CBMC] 지회운영 사례발표	한국CBMC의 3개의 다양한 지회 운영 성공/실패 사례 나눔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 귀담아 듣겠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 CBMC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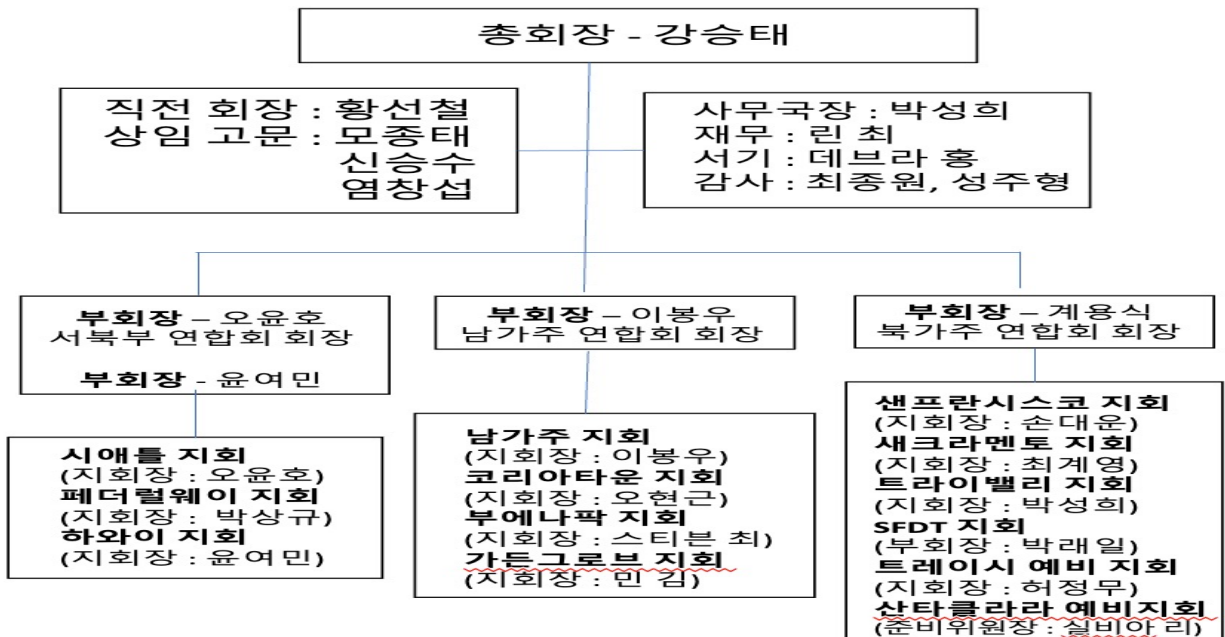
CBMC 세계대회 2023

2023년 08월 15일(화)-18(금), 영산수련원(오산리)

준비위원회 | 경기북부연합회(이성복 연합회장)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 11:1)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이봉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스티븐 최)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산타클라라 지회 (준비위원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